

[리뷰]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시간을 초월한 소통과 기적의 공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히가시노 게이고 지음 | 양윤옥 옮김 |  
현대문학 | 2012년

이 중 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일본의 대표적인 추리소설 작가로 알려진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으로서, 국내에서는 2012년 양윤옥이 번역하여 『현대문학』에서 발간된 이후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미 1999년에 『비밀』로 일본 추리작가협회상을 수상하고, 2006년에 『용의자 X의 헌신』으로 나오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방과 후』, 『백야행』, 『살인의 문』, 『편지』, 『흑소(黑笑) 소설』, 『독소(毒笑) 소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으며, 그 가운데 『백야행』은 연극, 드라마, 영화로도 제작되어 국내에서도 리메이크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작가의 이전의 추리소설들과는 달리,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특정한 공간을 배경으로 ‘편지’라는 소통의 도구를 통해 시간을 넘나들며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신비로운 요소를 갖고 있다. 몇 년 전에 국내 종합편성 채널인 tvN과 OCN에서 각각 방영된 『시그널』과 『터널』 역시 ‘무전기’라는 매개체와 ‘터널’이라는 시간 이동의 공간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과거를 통해 현재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되는 경험을 제공한

---

\* 협성대학교 교수, ejm24@naver.com

바 있다. 이와 같이 시공간을 넘나들며 전개되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 그리고 흥미로운 전달방식은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동시에 교양기초교육의 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 『나미야 잡화점』은 아쓰야, 쇼타, 고헤이라는 세 명의 젊은이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어떤 일, 물론 후에 도둑질로 드러난 일을 저지르고 도망치다가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듯한 폐가에 숨어들어 가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이 폐가에 대한 묘사를 살펴보면, 평소와는 달리 특정한 시간에 이 공간이 무엇인가 다른 분위기로 묘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세 젊은이가 숨어들어 머무르던 밤과 오래전 이 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가 죽기 전에 병이 들어 가게를 떠났다가 하룻밤만 돌아와서 새벽까지 머물렀던 시간에 이 폐가는 공기가 출렁이며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모습으로 신비롭게 묘사된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에 이 공간이 지금 현실 그대로의 공간이 아닌 그것을 초월한 특별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 폐가 건물이 잡화점 가게와 살림을 하는 주택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과 가게의 셔터에 난 우편함과 집 뒤쪽의 우유상자가 상세하게 묘사되는데, 이것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특별한 장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잡화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고민 상담을 해주던 곳으로, 나미야 할아버지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가벼운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었다. 그의 이름 ‘나미야’는 고민이라는 뜻의 ‘나야미’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아이들이 잡화점 이름을 ‘나야미, 나야미’라고 놀려대다가 간판에 상품 주문 상담을 해준다고 쓰여있는 글귀를 보고 고민(나야미) 상담도 해주냐고 물으면서 시작되었다. 밤중에 가게 앞 셔터에 난 우편함에 상담 편지를 넣으면 다음날 집의 뒷편에 있는 우유상자에 답장을 넣어주는 방식이었다. 처음에는 공부는 하기 싫은데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등 장난기 가득한 내용만 들어왔지만, 그때마다 나미야 할아버지가 정성껏 답을 해주다 보니 점차 진지한 상담이 들어오게 되었다. 물론 이 폐가

에 세 젊은이가 숨어든 날은 이미 나미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삼십 삼 년이 지난 후였지만, 그날 밤 우편함을 통해 들어온 편지는 과거로부터 온 것이었고, 세 젊은이가 그에 대한 답장을 보내면서 과거와 그들이 머무르고 있는 시간이 연결되어 소통이 가능한 공간이 된 것이다.

작품 전체의 구성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 장마다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사연이 소개되는데, 첫 장에서는 달토끼, 두 번째 장에서는 생선가게 뮤지션, 세 번째 장에서는 그린 리버, 네 번째 장에서는 폴 레논,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길 잃은 강아지라는 이름을 가진 상담 의뢰자들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소개된다. 첫 번째로 우편함을 통해 전해진 편지는 달 토끼라는 이름의 여자로부터 온 것으로, 실명을 밝히기 꺼려하는 그녀는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하는 운동선수인데 갑작스럽게 애인이 암에 걸려 그동안의 목표를 접고 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애인을 혼자 두고 올림픽 준비에 전념해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이 편지를 두고 답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세 젊은이가 논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아쓰야는 괜한 짓을 해서 숨어 있는 것이 발각될까 걱정하면서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의 고민 상담을 해 줄 때냐며 반대를 하지만, 심각한 편지 내용에 마음이 쓰인 고헤이는 쇼타를 끌여 들여 결국 답장을 보내기로 한다. 비록 지금은 도둑질을 하고 몰래 숨어있는 처지이지만, 다른 사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외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과 행동을 통해 거친 듯하지만 솔직하고, 무심한듯하면서도 따뜻한 젊은이들의 내면을 공감있게 그려내고 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생선가게 뮤지션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다른 어느 사연보다 몽클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가 목숨을 걸고 한 생명을 구해낼 뿐 아니라, 그의 음악이 어떻게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는지를 긴장감 있게 전해주기 때문이다. 생선가게 아들 가쓰로는 대학을 중퇴하고 음악에 전념하지만 프로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 아마추어 뮤지션에 불과하다. 대학을 그만둘 때 그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지만, 할머니의 장례식날 친척들

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뿐인 아들이 가게를 잇지 않고 음악을 한다고 비판을 받자 아들을 두둔하고 나선다. 병세가 깊어가는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음악에 승부를 걸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가쓰로는 가게를 이어받아야 할지 음악을 계속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나미야 잡화점에 상담 의뢰를 하게 된다.

마침 나미야 잡화점에서 달토끼와의 첫 번째 서신 왕래를 마치고 연이어서 가쓰로의 편지를 받게 된 세 젊은이는 사실 직장에서 내몰리고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질까지 하고 숨어있는 처지인데 이런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는 가쓰로가 못마땅해서 조롱하고 힐난하는 답장을 보낸다. 가쓰로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답장에 화도 나고 오기가 나서, 자신이 단지 현실을 무시하고 고상하게 예술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뮤지션이 되려한다는 해명을 진지하게 적어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쓰로의 생각을 비난하며 생선가게로 돌아가라고 조언을 하던 답장의 내용이 마지막에는 갑자기 전혀 다른 말투로 공손하게 바뀐다.

당신은 역시 뮤지션의 길을 향해 달릴겁니다…… 당신이 음악 외길을 걸어간 것은 절대로 쓸모없는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노래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낸 음악은 틀림없이 오래오래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지만, 아무튼 틀림없는 얘기에요. 마지막까지 꼭 그걸 믿어주세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 젊은이가 보낸 답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는 바로 상담 의뢰자가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쓰로가 마지막 편지를 우편함에 넣으려는 순간 자신의 자작곡을 들려주고 싶어져서 하모니카를 부는데, 반쯤 편지가 맞물린 우편함을 통해 그 연주를 들은 세 젊은이는 그 곡이 당대 최고의 가수 세리가 부른 〈재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마추어 음악가인 가쓰로가 어린 세리를 만나게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

위문공연을 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인 환광원에 방문할 때이다. 우수에 차 보이지만 어딘가 묘하게 끼가 있어 보이는 어린 소녀에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가쓰로는 다른 곡들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그 소녀가 하모니카로 연주한 마지막 곡에 관심을 보이자, 아직 가사를 붙이지 않은 그 곡이 자신의 자작곡 〈재생〉이라고 알려준다. 곧바로 음을 외워서 따라부르는 어린 소녀의 천부적인 재능에 감탄하던 가쓰로는 세리가 부모의 폭력 때문에 남동생을 데리고 시설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연을 마치고 방에 돌아온 그는 자신에게 프로그수로 데뷔하지 않느냐고 묻는 소녀의 말을 떠올리며 8년전 할머니 장례식에 갔을 때를 회상하다가 잠이 든다. 꿈에서 그는 음반 가게에서 〈재생〉이라고 적힌 씨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곡을 흥얼거리지만,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서 시디 재킷을 열어 가사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 순간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깬 가쓰로는 지금 자신이 환광원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밖에서 “불이야, 불이야!”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방을 나선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계단을 내려가던 그는 복도에서 있는 세리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대피하라고 고함을 치지만, 소녀는 동생이 아마 옥상에 있을 거라며 울먹거린다. 그는 세리에게 자신이 가볼테니 먼저 대피하라고 말해주고 계단을 다시 올라가는데 점점 차오르는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며 나아가다가 세리의 동생을 발견하고 아이를 업은 채 불길 속을 내달린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온몸이 뜨거운 화염과 연기에 휘감겨 고통스럽고 의식이 아득해지는 상황에서, 그는 오래전에 나미야 잡화점에서 받았던 편지글을 희미하게 떠올린다. 바로 그의 음악 인생이 쓸모없지 않고 그의 음악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며 그 사실을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답장을 보낸 세 젊은이는 가쓰로가 지금 최고의 가수가 되어 있는 세리의 남동생을 구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차마 알려줄 수는 없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달토끼나 생선가게 뮤지션을 비롯한 대부분의 편지가 고민 상담 의뢰자에게 초점을 두고 그들의 처지와 내면의 고민을 상세하게

다루었다면, 세 번째 장에서는 잡화점의 주인 나미야 할아버지 즉 고민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일전에 가정이 있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과연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의뢰했던 그린 리버라는 여성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결국 훗날 그녀가 아이와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미야 할아버지는 자신의 답장이 상담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마음편히 답장을 할 수 없게 되어 가게를 접게 되었다. 이후 그는 아들의 집에 들어가서 병원 치료를 받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들에게 자신을 하룻밤만 잡화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날 밤 나미야 할아버지가 받은 편지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삼십 삼년이 되는 기일날 나미야 잡화점의 고민 상담 창구가 하룻밤 부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신이 과거에 상담을 해 주었던 사람들로 부터 미래에서 전해온 감사 편지였다. 특히 그린 리버의 살아남은 아이로부터 온 감사 편지에는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아이만을 돌보다가 자기 자신은 너무 허약해져 일어난 사고였다는 사연이 들어 있었다. 대부분의 감사 편지를 제외한 한 통의 편지는 백지로 보내진 것이었다. 그것은 놀랍게도 지금 잡화점에 숨어들어 있던 아쓰야가 보낸 것이다. 한참을 하던 나미야 할아버지는 가게를 떠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백지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낸다.

이름없는 분에게

어렵게 백지 편지를 보내신 이유를 내 나름대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걸 어지간히 중대한 사안인게 틀림없다. 어설피 선부른 답장을 써서는 안되겠다. 하고 생각한 참입니다....나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길 잃은 아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지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당신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것 같군요. 당신의 지도는 아직 백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정하려고 해도 길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도가 백지라면 난감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라도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겠지요. 하지만 보는

방식을 달리해보시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나미야 할아버지로부터 온 답장은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어디로 가야할지를 모른 채 방황하는 젊은이에게 스스로를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다니는 세 젊은이에게 전해진 따뜻한 격려의 편지는 오늘날 모든 젊은이들을 향해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작가의 응원의 메시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어지는 네 번째 장에서 소개된 폴 레논의 사연은 어느 날 부모를 따라 야반도주를 하던 소년이 나미야 할아버지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지만 그의 조언에 따르지 않고 혼자 도망쳐서 나중에 조각가로 성공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 그다지의 미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편지들처럼 세 젊은이와 서신을 주고받은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 나미야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답장을 받은 조각가가 상담의 조언과는 반대되는 삶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상담자의 진지하고 따뜻한 답장의 내용대로 그의 부모가 얼마나 자신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고민 상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거나 꼭 그의 조언대로 상담 의뢰자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지만, 따뜻하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진지하게 위로와 격려를 건네는 것이야말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들의 고민과 처지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있지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줌으로써 누군가의 인생에 큰 위로와 빛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장에서는 길 잃은 강아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품 곳곳에 숨어있던 장치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전체적인 사건의 윤곽을 드러

낸다. 처음에 일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세 명의 젊은이가 도둑질을 한 상대가 바로 자신들이 상담을 해준 길 잃은 강아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미야 할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등장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환광원이라는 아동복지시설과 연관되어 있으며, 각 인물들간에 접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마치 퍼즐 조각을 완성한 듯한 짜릿한 쾌감을 안겨준다. 물론 작품이 전개되면서 조금씩 그런 사실들이 언급되었지만 마지막에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거대한 씨클을 이룬다는 점에서 작품의 구조와 탄탄한 연결고리에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세 젊은이가 마지막으로 고민 상담을 해 준 길 잃은 강아지는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호스티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조언에 따라 공부하고 투자해서 돈을 벌면서 현재는 성공한 여사업가가 되어 환광원을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진다. 환광원 출신인 세 젊은이는 처음에는 이 무토 하루미라는 여사업가가 환광원을 통째로 매입해서 없애버리고 러브호텔을 지을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 그녀를 혼내줄 겸, 또한 자신들의 내몰린 인생의 화풀이도 할 겸, 그녀를 조사해서 미행하고 일부러 그녀의 별장에 도둑질을 하러 간 것이었다. 별장이 비어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갑자기 그녀가 방문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묶어놓고 핸드백을 훔쳐서 달아난 세 젊은이는 나중에야 가방 안을 뒤져보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길 잃은 강아지가 하룻밤만 나미야 잡화점의 고민 상담 창구가 부활한다는 공고를 보고 감사를 드리기 위해 쓴 편지, 다시 말해서 밤새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을 해준 자신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이다. 그로 인해 세 젊은이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된다. 막다른 처지에 내몰리고 울분에 쌓여 도둑질이라는 큰 잘못을 했지만, 이제 돌아가서 그녀를 풀어주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세 사람의 눈빛이 반짝거리는 마지막 장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와는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신비로운 공간을 배경으로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소통의

이야기는 세 젊은이뿐만 아니라 오늘날 과오와 방황의 기로에 서서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만약 그들이 나미야 잡화점이라는 기적과 같은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소통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들의 인생은 좀도둑이나 더 큰 범죄자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특히 상담을 의뢰한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 젊은이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었다는 점에서 작가의 특별한 의도가 엿보인다. 다시 말해서 곤궁한 처지의 삶에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인생은 다시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그 열린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구성과 함께 감동적인 내용들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동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